

북한에 대한 인지편향(기준점편향)이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 승 조*, 배 영 민**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인지편향(기준점편향)을 지닌 집단 간의 통일인식 차이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북한과 관련된 학교교육이 제공하는 내용의 차이에 따라 인지편향(기준점편향)이 발생하고, 형성된 관점에 따라 통일인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연구가 진행되었다. 실증적 연구를 위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주관한 통일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인지편향이 상이한 두 개의 그룹은 청소년기 학교에서 주로 접했던 분야를 "반공과 안보"로 선택한 집단(A그룹)과 "통일이의, 다문화, 북한 이해"를 문항에서 선택한 집단(B그룹)을 기준으로 구분되었다. 분석결과 A그룹은 성인이 되어서도 북한을 적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B그룹은 대화와 협력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지편향(기준점편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A그룹은 B그룹에 비해 통일이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이득이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북한과의 타협과 대화에 대한 호응도도 낮았다. 하지만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 측면에서는 두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초기 학교교육이 성인 이후의 통일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학교 통일교육 방향에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ffect of Cognitive-Bias (Anchoring Bias) to N. Korea on Reunification Perception

Seung Jo Han*, Young Min Ba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reunification perception among groups with different cognitive bias(anchoring bias) through empirical studies. This study assumes that cognitive bias occurs according to the content of N. Korea provided in school education, and that the cognitive bias formed in youth creates a difference in perception of N. Korea and reunification. For empirical study, a survey of reunification awareness conducted by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Seoul National University was used, and the two groups are divided into A-group that chose "anti-communism or security" and B-group that did "reunification interests, multi-culturalism and understanding North Korea" according to N. Korea content which was encountered in school education during adolescence. A-group recognized N. Korea as a hostile target even after becoming an adult, while B-group regarded N. Korea as a one of dialogue and cooperation. This analysis illustrates the existence of cognitive bias between the two groups because of N. Korea content which was given in school education. A-group had a lower percentage than B-group in terms of the benefits of reunification to S. Korea and the need for more dialogue and compromise with N. Korea.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terms of acceptance of N. Korean defectors. This research result could be a reference to the direction of school education policies relating to reunification in that early school education affects reunification awareness and perception related with N. Korea even in adulthood.

Key words : Cognitive Bias, Anchoring Bias, Reunification Awareness, N. Korea. School Education

접수일(2021년 01월 12일), 게재확정일(2021년 03월 22일)

* 국방과학연구소/1본부(주저자)

** 김천대학교/군사학과(교신저자)

1. 서 론

인터넷 등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와 이에 수월하게 접근하게 하는 스마트폰 등의 ICT 발달에 따라 정치 및 사회 분야에서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인터넷 및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한 분야에 확증편향적 성향을 보유한 제작자에 의해 만들어진 콘텐츠는 가짜뉴스나 팩트가 미약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급속하게 퍼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1]

유희정과 이숙중이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사회갈등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계층·이념·노사 갈등이 아직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회갈등의 해소는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2] 20세기 중반 이후의 이념 대결 및 전쟁으로 인하여 이념갈등을 논할 때에는 북한과의 관계를 연관시키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6.25이후 냉전시대를 경험한바 있으며, 현재는 2018년 이후 미북 및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등 과거와는 다른 남북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6.25 및 베트남전을 포함한 냉전의 산물을 몸소 경험한 세대로부터 이와는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세대가 어우러져 있는 한국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통일이 달성되거나 현 남북관계가 장기간 지속되어야만 북한과 관련된 이념의 차이가 현재보다 좁혀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대상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는 집단이 존재할 때, 인식 차이의 근본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고는 이견(異見)되는 이슈에 대한 합의가 상당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집단 간의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 정치·사회·문화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바탕이 된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 장교·준사관·부사관·병사·군무원 등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며, 군 전체를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 할 경우 각 집단의 복무 이유이나 군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일부 계층에 치우친 그릇된 정

책이 수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 사회의 대중매체를 통해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확증편향에 대한 것도 인지·사회학적 학술적인 용어로 정립이 필요하다. 확증편향이 한 국가나 민족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반드시 부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제국주의 시대나 20세기 전반기의 민족주의 사상이 팽배했던 시대에는 단순히 한 국가나 민족의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순기능이 존재할 수도 있었고, 종교적 관점에서 신도들의 단결력과 세력 확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다. 주의할 점은 일부 세력에게는 위와 같은 이점이 존재할 수 있지만, 글로벌한 관점에서는 이점보다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확증편향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발생되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발생 원인을 안다는 것은 부작용이 많을 경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 주기 기간 중 북한에 대한 확증편향(혹은 인지편향)이 어디에서부터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통일인식의 차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관련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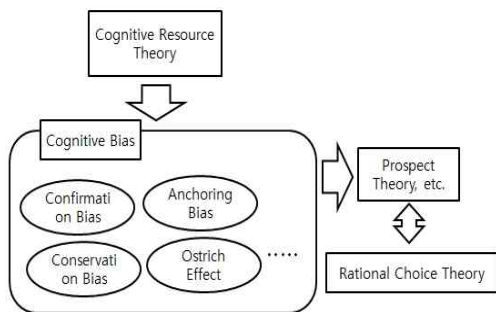
2.1. 인지편향, 확증편향, 기준점편향

인지심리학(Cognitive Psychology) 측면에서 인지편향(Cognitive Bias)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논리적이지 못한 추론을 근거로 그릇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을 말하며, 인지편향의 일부로써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 있다. 확증편향은 자신의 기존 사고나 경험에 비추어 일치성이 많은 것만 받아들이고, 일치성이 부족한 것은 배척하는 인간의 심리이다.[3] 즉, 인지편향의 일부로써 확증편향은 본인의 사고에 대한 집착이 더욱 공고화되고 배척성이 증가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인지편향의 한 부분인 기준점편향(Anchoring Bias)은 인간에게 초기에 제공된 정보가 이후에도 인지 및 판단의 근거로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학적 관점에서 생의 전체 주기(Life Cycle) 중에서 초기에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학습·

강요 혹은 경험은 기준점편향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확증편향, 기준점편향을 포함한 인지편향은 뇌과학(Brain Science)과 연관하여 설명하려는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인지적자원이론(Cognitive Resource Theory)에 따르면 인간은 개인별로 뇌에서 정보를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능력이 정해져 있으며, 개인의 뇌 능력에 부하>Loading)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쉬운 방법으로 인지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4] 즉, 인간은 정보를 처리하고자 할 때 본능적으로 노력이 필요로 하는 복잡하고 합리적인 방식보다는 쉽고 빠른 방법을 선호하는 특성을 지닌다.[5]



(Figure 1) Theories relating to Cognitive Bias

인지편향과 관련된 사고과정은 단순하면서 뇌에 대한 인지적인 부하가 적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이나 추론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단순 명료한 구호나 예술적인 표현, 반복적인 교육이 인지편향을 발생 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인지편향은 의사결정이나 선택에 비이성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사회과학 이론과 연관이 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이 있으며, 이는 인간은 이익보다는 손실에 민감하다는 점을 활용한 이론이다. 전망이론은 인간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설명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손실영역(Loss Area)에서는 위험을 선택하려고 하고 이익영역(Gain Area)에서는 위험을 회피하는 태도가 발견되어 도박이나 주식 투자 시 관련 인원의 행동을 어느 정도

설명하거나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이와는 반대로 동물과는 다르게 이성이 존재하여 인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도 수행한다는 것이 합리적 의사결정 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이다.

인간의 본성 중의 하나인 인지편향은 이미 생성된 것에 대한 교정의 단계를 밟지 않으면 평생 유지될 가능성이 크며, 교정의 효과가 있더라도 다시 원래의 인지편향으로 회귀(Regression)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확증편향보다는 인지편향, 특히 기준점편향과 관련된 북한에 대한 인식을 다룰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을 적대의 대상으로 바라보느냐 혹은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보느냐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며,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개념이 강한 확정편향보다는 더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부정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약한 인지편향이 본 연구에서는 적합하다. 또한 한국사회의 특성상 북한에 대한 정보는 주로 학교교육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공되고, 반복적으로 주입되는 현상이 과거에서부터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인지편향의 범위를 더 좁힌다면 기준점편향이 더 적합하다.

또한 인지편향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 사이에서 본능으로부터의 생성과 학습이나 경험으로부터의 발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인간은 학습이 되기 전부터 불을 두려워하고, 뱀을 보면 뒤로 물러서는 행동을 취하기도 하는 것은 본능으로부터의 생성이며,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서는 좌우를 살피는 행동이 학습이나 경험으로부터의 발생이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국민이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은 본능에 의한 인지편향(기준점편향)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학습에 의한 생성과 연관시킬 필요가 있다.

Wang & Simon 등의 연구에 의하면 인지편향은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유아기부터 발생하긴 하지만 그 영향이 생애 전 주기에서 크지 않으며, 사회활동이 시작되는 성장기 동안의 교육을 통해 강화되기 때문에 교정 또한 성장기의 교육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6] 하민수의 연구에서도 사회 및 교육학적으로 인지편향이 생성되고 공고화되는 시기

를 청소년기의 학창시절로 보고 있으며, 잘못된 인지편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도 교육, 특히 청소년기 학창시절에 바른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연구된 바 있다.[3] Mannheim은 청소년기에 접하는 특정의 역사적 사건이나 사고 경험을 공유하면 비슷한 의식구조와 행동양식을 갖추게 되며, 더 나아가 이러한 동질의 집단이 하나의 독립적인 세대(예, 386세대, 디지털 세대 등)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7]

2.2. 통일인식

통일에 대한 인식의 문제는 일정한 시기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것으로 바라봐야 한다. 즉, 한반도 환경에서 국제정치 및 외교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미·일·중·러 주변국과의 정치 및 군사적인 관계, 국내에서의 대북한 정책 등의 영향으로 수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통일인식은 시간에 유의한 관계를 지닌다.

통일인식의 문제는 세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서현진은 Table 1에서와 같이 통일을 바라보는 세대를 전쟁 세대·민주화 세대·정보화 세대로 구분하였고,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에 대한 관심과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연구하였다.[8]

<Table 1> Generational Division(I) related with Korean Unification [8]

Generational Division	Birth Yr.	National Events
War-Generation	1928-1955	6.25 War, Vietnam War
Democratization-Generation	1956-1975	Industrialization & Democratization, 5-18 Civil Resistance, 88 Olympic
ICT-Generation	1976-1997	Post Cold-War, IMF, South-North Summit, Cheonan-Ship Sinking Incident

반면 김병조는 통일세대를 서현진의 구분보다

세분화하여 체제경쟁 세대·민주민족통일 세대·탈냉전통일 세대·신자유주의통일 세대로 구분하였으며, 서현진의 연구와 동일하게 세대가 젊어지는 신자유주의통일 세대로 갈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낮게 공감하고, 통일에 무관심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하였다.[9] 또한 세대별로 해당 시기의 사건으로 인해 학교교육 과정이 변경되었고, 이것이 통일인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음을 제시하였다.

<Table 2> Generational Division(II) related with Korean Unification [9]

Generational Division	Birth Yr.	National Events(During Adolescence)
Ideology Competition Generation	1941-1960	Attacks by Armed Spies, Vietnam War
Democratization/Reunification Generation	1961-1970	Industrialization & Democratization, 88 Olympic
Post Cold War Generation	1971-1980	Soviet Collapse, German Unification, North Korean Defectors Outbreak, Mt. Geumgang Tourism
Neoliberalism/Reunification Generation	1981-1995	IMF, South-North Summit, Increase in North Korean Defectors, Cheonan-Ship Sinking Incident

상기 세대구분에 따른 통일인식 조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일인식의 차이를 연구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인지편향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김병조의 논문은 주로 세대별로 남북관련 사건이 통일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학교교육과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한 것에는 연구의의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학교교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북한에 대한 인지편향이 어떻게 통일인식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연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한승조의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이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다문화 수용성이 통일인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바 있다.[10]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이 통일인식 변화와 매우 밀접

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한 연구였지만,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인지편향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인지편향(기준점편향)과 통일인식 관련 실증적 연구

3.1. 가설설정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적 연구를 통해 가설의 채택 및 기각여부를 알아본다. 두 개의 비교 그룹은 학교교육을 통해 “반공과 안보”를 주로 교육받은 집단(A group)과 “탈북자와 다문화, 통일이익”을 주로 교육받은 집단(B group)으로 하였다.

첫째, 상기 A, B group 간에는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이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발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H1). 둘째, 두 그룹 간 북한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H2). 마지막으로, 상기 A, B group 간에는 북한이탈 주민 수용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H3).

인지편향(기준점편향)이 집단 내에 존재여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김대업 및 박재환의 연구에서 설문결과가 DB로 활용된 구조방정식모델(SEM)을 통해 인지편향의 정도를 측정할 바 있다.[11] 연구에서 인지편향을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 보고, 현상유지편향 등의 정도를 관측변수(Observed Variable)로 하여 모델을 구성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현상유지편향은 판단을 내릴 경우 과거에 선택했던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경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11] 이는 Bhutta와 Shah의 연구에서도 활용되었고,[12] 용어만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현상유지편향과 관련된 질문은 기준점편향과 유사한 것이다.

위 연구는 인지편향(기준점편향)의 존재여부는 설문을 통해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음을 함의(含意)하고 있으며, 추후 연구방향(Further Research Area)으로 편향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나 절차

가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함을 병행해서 말해주고 있다. 위 H1 ~ H3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2018년에 수행되었던, 통일인식조사 자료(1,200명 설문 응답)를 통계적으로 활용하였다. 상기 Raw 데이터 사용에 관해서는 통일평화연구원(<https://kossda.snu.ac.kr>)의 사전 승인을 득하였으며, 두 집단 간의 차이는 독립표본 t 검정이 이용된다.

3.2. 실증적 연구(Empirical Study)

인식편향(기준점편향)의 그룹 구분은 <Table 1>, <Table 2>를 기준으로 구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즉, 서현진의 세대 구분에서 민주화 세대나 정보화 세대 모두 청소년기의 학교교육에는 “반공과 안보”뿐만 아니라 “통일이익, 탈북자와 다문화, 북한에 대한 이해 등”이 혼재되어 있었고, 김병조의 세대 구분도 동일하게 탈냉전통일 세대나 신자유주의통일 세대에도 위와 같은 혼재된 경험이 존재하다.

따라서 두 그룹을 구분하는 것은 2018년 설문조사 당시의 “학교교육에서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 가장 많이 들었던(교육받았던)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인식과 관련된 본 연구에 적합하다. Table 3에서와 같이 A그룹은 주로 “반공 및 안보” 위주의 교육에 중점적으로 노출된 그룹이며, B그룹은 주로 “북한 이해, 탈북자나 다문화, 남북한 민족의식 함양, 통일의 이익”을 중점적으로 교육받은 집단(설문자의 주관적 선택)이다.

<Table 3> Group Division

Group	Age(Ave.)	Age(S.D.)	Number of Selection
A	49.9	3.24	778
B	38.2	3.03	422

인지편향이 존재하는 두 집단 간에 통일이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Table 4>에서 평균값이 작을수록 긍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높다고 해석한다(예, 1 : 매우 이익 기대 ~ 4 :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음). 분석결과 A, B 그룹 간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하였다. 따라서 가설 H1은 기각되지 않으며, 인지편향이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은 A그룹에서 통일이 우리나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가 B그룹보다는 낮았다.

<Table 4> Does Unification Benefit Our Country's Development?

Group	AVE.	S.D.	t-Test Result
A	2.41	0.77	p-value(0.014) < 0.05 Not Rejected
B	2.30	0.73	

가설 H2와 관련하여 두 그룹 사이에서 북한과의 타협과 대화가 가능한지를 살펴본다. Table 5에서 평균값이 작을수록 타협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정도가 높다고 해석한다(예, 1 : 매우 가능 ~ 4 : 전혀 가능하지 않음). 분석결과 북한은 타협과 대화의 대상으로 여기는 정도가 A그룹이 B그룹에 비해 낮다.

<Table 5> Can we talk and compromise with North Korea?

Group	AVE.	S.D.	t-Test Result
A	2.46	0.65	p-value(0.019) < 0.05 Not Rejected
B	2.37	0.62	

최근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가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당선, 대중매체를 통한 잦은 노출로 인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 인지편향과 관련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북한 이탈주민은 북한 정권 및 군부에 의한 세력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북한 이탈주민은 군에서 생각하는 적에 가까운 집단인 북한 정권과 군부를 의미하지 않으며, 대부분 일반 주민이 우리나라에 이탈하여 정착한 시민을 의미한다.

<Table 6>의 평균은 5-point likert scale을 적용한 것으로 5에 가까울수록 수용도가 높다고 판단

하며, 질문은 “이웃주민으로써 북한 이탈주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였다. A그룹과 B그룹 사이의 북한 이탈주민 수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A그룹에서는 인지편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한 학교교육에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이 없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 A, B 그룹 모두 동일하게 언론 매체를 통해서 쉽게 북한 이탈주민들을 접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Table 6> Accepta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Group	AVE.	S.D.	t-Test Result
A	3.30	0.76	p-value(0.554) > 0.05 Rejected
B	3.43	0.82	

가설 H1, H2, H3에서 보듯이 학교교육에서 주로 접했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성인 이후에도 동일인식에 차이를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및 북한의 국가적 차원이나 통일문제에서의 인지편향(기준점편향)은 가설 H1, H2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것은 편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과거나 현재에도 안보(Security)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군사적 위협을 주는 북한은 정권 및 군부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라는 점을 교육받았다는 것이다. 다른 의미에서 학교교육에서의 북한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 이후에도 인식이 이어지는 인지편향(기준점편향)이 있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지편향, 특히 기준점편향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학교교육을 통해 형성된 편향으로 인해 성인 시기에 통일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알아보았다. 북한을 주로 적대적인 대상으로 교육을 받은 집단(A)에서는 협력적 인지편향을 지닌 집

단(B)에 비해 통일이 우리나라 발전에 이익이 된다고 느끼는 정도가 낮았고, 북한과는 타협이 되지 않는다는 경향이 높았다. 하지만 북한 이탈주민 수용도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에 대한 교육내용에 따라 성인 이후의 통일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후 변경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학교 통일 교육의 방향에 참조가 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인지편향과 관련된 집단 간의 인지적 특성 및 의사결정은 앞서 설명한 전망이론(Prospect Theory)[13, 14]과 연관하여 설명이 일부 가능하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대상으로의 인지편향이 존재하는 A 그룹은 6.25 전쟁, 베트남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바 있고, 냉전 체제가 극심했던 세대이며 북한의 잦은 도발도 경험한 세대이다. 전망이론 측면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이나 교류는 손실(Loss)적인 측면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감수적(Risk-Acceptant) 성향이 발현될 수 있고, 이러한 성향이 북한을 포용과 협상의 대상보다는 군사 및 정치적으로 강하게 대립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B 그룹에서는 앞선 가설검증(H1)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이나 교류를 통한 통일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A 그룹보다 높기 때문에, 이를 이익(Gain) 영역으로 인식하고 북한과의 강대강 대립보다는 협력과 교류를 선호하는 위험 회피적(Risk-Averse)인 성향이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행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실증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다음의 연구제한사항이 존재하며, 이는 추후 더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두 개의 그룹을 학교교육을 통해 북한을 주로 접한 것이 편향의 원인이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룹을 나눈 것은 청소년기 교육 내용과 수준의 정도이지만, 통일인식에 대답한 것은 성인 이후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교육으로 인해 발

생된 것이 성인 이후까지 인지편향이 명확하게 이어졌는지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M. K. Kim. (2019). The Effect of Social Communication Behavior Depending on News Credibility, News Involvement, Confirmation Bias: focusing on the difference of user's effect of fake news and fact news. Korean Political Communication Association, 52, 5-48.
- [2] H. J. Yu & S. J. Lee. (2016). A Study on Causes and Managements of Social Conflicts in South Korea: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Conflict Types. Korea Society, 17(1), 39-80.
- [3] M. S. Ha. (2016). Exploring Cognitive Biases Limiting Rational Problem Solving and Debiasing Methods Using Science Education. JKASE, 36(6), 935-946.
- [4] S. J. Han & S. U. Kim & K. C. Koo, et al. (2017). Effects of Virtual Reality Images on Body Stability : Focused on Hand Stabil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8), 391-400.
- [5] D. Kahneman & P. Slovic & A. Tversky. (1982).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Ed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6] X. T. Wang & F. Simons & S. Bredart. (2001). Social cues and verbal framing in risky choice.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4(1), 1-15.
- [7] K. Mannheim. (1952). The Sociological Problem of Generations.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Routledge & Kegan.
- [8] H. J. Seo. (2017). School Education for Korean Reunification and Generational Differences regarding Reunification Issues.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29(1), 93-127.
- [9] B. J. Kim. (2015). Korean Perception to the Unification during 2007~2015: Focused on Generation Gap and Intra-Generation

Differentiation.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7(2), 3-41.

- [10] S. J. Han. (2017). (A) Study on Effect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n Awareness of Unification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0), 1-7.
- [11] D. Y. Kim & J. H. Park. (2020). The Effects of Cognitive Bias on Entrepreneurial Opportunity Evaluations through Perceived Risks i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1), 95-112.
- [12] N. T. Bhutta & S. Z. Shah. (2015). Do Behavioural Biases Impact Corporate Entrepreneurship, Agency Cost and Firm Performance: Evidence from Developed and Developing Economies?. Pakistan Journal of Commerce and Social Sciences, 9(3), 761-798.
- [13] S. J. Han & J. Shin. (2018). Evaluation and Forecast of North Korea's Nuclear Policy through Libya Model. Journal of convergence security, 18(3), 113-122.
- [14] S. Y. Guahk. (2017).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Prospect Theor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1), 107-112.

[저 자 소 개]



한 승 조 (Han, Seung Jo)
1998년 2월 육군사관학교 학사
2002년 2월 KAIST 석사,
아주대학교 석사
2011년 9월 미)뉴욕주립대(비팔로)
박사과정 수료
2013년 2월 단국대학교 박사
2019년 9월 충남대학교 박사
email : seungjo1651@add.re.kr



배 영 민 (Bae, Young Min)
1998년 2월 육군사관학교 학사
2007년 2월 고려대학교 석사
2013년 2월 연세대학교 박사
email : c13001@naver.com